

해설자료 구성과 활용 하는 방법

[해설 자료]

1. 지문

<p>노동자 움직임에 주목한 연구에 따르면, 글을 읽을 때 독자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단어나 생소하다고 생각한 단어를 중심으로 읽는다. 글을 읽을 때 독자는 노동자를 단어에 멈추는 고정, 고정과 고정 사이에 일어나는 도약을 보였는데, 도약은 한 단어에서 다음 단어로 이동하는 짧은 도약과 단어를 건너뛰는 긴 도약으로 구분된다. 고정이 관찰될 때는 단어의 의미 이해가 이루어졌지만, 도약이 관찰될 때는 건너뛴 단어의 의미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글을 읽을 때 독자가 생각하는 단어의 중요도나 친숙함에 따라 노동자의 고정 시간과 횟수, 도약의 길이와 방향도 달랐다. 독자가 중요하거나 생소하다고 생각한 단어일수록 고정 시간이 길었다. 이러한 단어는 독자가 글의 진행 방향으로 읽어 가다가 되돌아와 다시 읽는 경우도 있어 고정 횟수도 많았고, 이때의 도약은 글의 진행 방향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중요한 단어나 생소한 단어가 연속될 때는 그 단어마다 독자가 멈추면서 도약의 길이가 짧아</p>	<p>도약 경험 배경 분명 정확 하나 다시 도약</p> <p>[글을 - 독 어 했 자 그 자</p>
--	---

설명: 사각형 네모 안에 내용은 지문입니다.

To-Do List:

- 지문 읽으시고, 아래 해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해당 지문이 이해가 안가거나 인상적인 내용이 있다면, 별표나 나름대로의 표시하고, 나중에 복습하시면 됩니다.

2. 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

<p>[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p> <p>- 노동자 움직임 분석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게. 이 방법은 독자의 생각 과정을 알아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야. 노동자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뭐를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어.</p> <p>[포인트]</p> <p>관계 확인: 노동자와 사고과정</p> <p>노동자 움직임에 주목한 연구에 따르면, 글을 읽을 때 독자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단어나 생소하다고 생각한 단어를 중심으로 읽는다. 글을 읽을 때 독자는 노동자를 단어에 멈추는 고정, 고정과 고정 사이에 일어나는 도약을 보였는데, 도약은 한 단어에서 다음 단어로 이동하는 짧은 도약과 단어를 건너뛰는 긴 도약으로 구분된다. 고정이 관찰될 때는 단어의 의미 이해가 이루어졌지만, 도약이 관찰될 때는 건너뛴 단어의 의미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글을 읽을 때 독자가 생각하는 단어의 중요도나 친숙함에 따라 노동자의 고정 시간과 횟수, 도약의 길이와 방향도 달랐다. 독자가 중요하거나 생소하다고 생각한 단어일수록 고정 시간이 길었다. 이러한 단어는 독자가 글의 진행 방향으로 읽어 가다가 되돌아와 다시 읽는 경우도 있어 고정 횟수도 많았고, 이때의 도약은 글의 진행 방향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중요한 단어나 생소한 단어가 연속될 때는 그 단어마다 독자가 멈추면서 도약의 길이가 짧아</p>	<p>도약 경험 배경 분명 정확 하나 다시 도약</p> <p>[글을 - 독 어 했 자 그 자</p>
---	---

설명: 처음 글을 읽고 드는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To-Do List:

- 지문에 읽으면서 하는 생각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처음 1회독을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요약하고 정리하는지를 확인해봅시다.

3. 포인트

<p>[포인트]</p> <p>주제: 문화산업이 원인: 대중예술을 상품으로 전락시킴 목적: 이윤극대화 결과 1: 예술의 본질을 상실함 결과 2: 현대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함 결과 3: 개인의 정체성이 상품화됨</p> <p>또 다른 원인 : 표준화 된 상품으로서의 대중예술 결과 1: 개인의 감성 능력을 표준화함</p> <p>출제암시: ㉠전락시키는</p> <p>아도르노는 서로 다른 가치 체계를 하나의 가치 체계로</p>	<p>도약 경험 배경 분명 정확 하나 다시 도약</p> <p>[글을 - 독 어 했 자 그 자</p>
--	---

설명: 2회독 시, 정리되는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To-Do List:

- 글을 읽고 여러분들이 못 잡았던 관계들을 표시하시고, 해당 관계들을 확인해봅시다.
- 혹은 해설 자료에 없는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셨다면, 그 내용을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1~3

글을 읽는 동안 독자의 사고 과정을 밝힐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눈동자 움직임 분석 방법이다. 이것은 사고 과정이 눈동자의 움직임에 반영된다고 보고 그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

- 눈동자 움직임 분석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게. 이 방법은 독자의 생각 과정을 알아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야. 눈동자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어.

[포인트]

관계 확인: 눈동자와 사고과정

눈동자 움직임에 주목한 연구에 따르면, 글을 읽을 때 독자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단어나 생소하다고 생각한 단어를 중심으로 읽는다. 글을 읽을 때 독자는 눈동자를 단어에 멈추는 고정, 고정과 고정 사이에 일어나는 도약을 보였는데, 도약은 한 단어에서 다음 단어로 이동하는 짧은 도약과 단어를 건너뛰는 긴 도약으로 구분된다. 고정이 관찰될 때는 단어의 의미 이해가 이루어졌지만, 도약이 관찰될 때는 건너뛴 단어의 의미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글을 읽을 때 독자가 생각하는 단어의 중요도나 친숙함에 따라 눈동자의 고정 시간과 횟수, 도약의 길이와 방향도 달랐다. 독자가 중요하거나 생소하다고 생각한 단어일수록 고정 시간이 길었다. 이러한 단어는 독자가 글의 진행 방향대로 읽어가다가 되돌아와 다시 읽는 경우도 있어 고정 횟수도 많았고, 이때의 도약은 글의 진행 방향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중요한 단어나 생소한 단어가 연속될 때는 그 단어마다 눈동자가 멈추면서 도약의 길이가 짧았다.

[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

- 글을 읽을 때, 보통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나 이상한 단어에 초점을 맞추게 돼. 눈동자 움직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고정과 도약이야. 단어의 의미를 이해했을 때는 고정, 건너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는 도약으로 나타나지. 또한, 보통

독자가 단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눈동자가 고정되는 시간이나 횟수, 도약의 길이와 방향도 달라지는 거 같아.

[포인트]

내용 구분: 고정과 도약

양적 관계: 긴 도약과 짧은 도약

추가적 관계 확인: 도약된 것과 도약되지 않은 것

또 다른 기준 확인: 친숙함과 중요성

눈동자 움직임의 양상은 독자의 읽기 능력이 발달하면서 변화한다. 읽기 능력이 발달하면 이전과 같은 수준의 글을 읽거나 전에 읽었던 글을 다시 읽을 때, 단어마다 눈동자를 고정하지는 않게 되어 ㉠이전보다 고정 횟수와 고정 시간이 줄어들고 단어를 건너뛰는 긴 도약이 자주 일어나는 모습이 관찰된다. 학습 경험과 독서 경험이 쌓이면서 글의 구조에 대한 지식과 아는 단어, 배경지식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읽기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면서 글에서 중요한 단어를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때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 이미 읽은 단어를 다시 확인하려는 도약, 앞으로 읽을 단어를 먼저 탐색하는 도약 등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

- 독자의 읽기 능력이 개선되면서 눈동자 움직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설명해. 읽기 능력이 개선되면 고정 횟수와 시간이 줄어들고 단어를 건너뛰는 긴 도약이 자주 일어나, 이미 읽은 단어를 다시 확인하려는 도약, 그리고 앞으로 읽을 단어를 먼저 탐색하는 등의 도약이 자주 일어나.

[포인트]

출제 암시: ㉠이전보다 고정 횟수와 고정 시간이

줄어 들고 단어를 건너뛰는 긴 도약이 자주 일어나는 모습

- 고정횟수와 고정시간의 감소

- 긴 도약의 빈도 상승

원인과 결과: 읽기 능력 개선과 눈동자의 움직임 변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4~9

(가)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에 의해 양산되는 대중 예술이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으로 전락함으로써 예술의 본질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현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 예술은 창작의 구성에서 표현까지 표준화되어 생산되는 상품에 불과하다. 그는 대중 예술의 규격성으로 인해 개인의 감상 능력 역시 표준화되고, 개인의 개성은 다른 개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게 된다고 보았다. 특히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 예술은 개인의 정체성마저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

- 아도르노의 대중 예술 비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대중 예술은 돈을 버는 상품이 되어버려서 예술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양성을 희생시키며 개인의 감성을 상품화시키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정체성 까지도 상품화된다는 거야.

[포인트]

- 주제: 문화산업이
- 원인: 대중예술을 상품으로 전락시킴
- 목적: 이윤극대화
- 결과 1: 예술의 본질을 상실함
- 결과 2: 현대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함
- 결과 3: 개인의 정체성이 상품화됨

또 다른 원인 : 표준화 된 상품으로서의 대중예술

결과 1: 개인의 감상 능력을 표준화함

출제암시: @전락시키는

아도르노는 서로 다른 가치 체계를 하나의 가치 체계로 통일시키려는 속성을 동일성으로, 하나의 가치 체계로의 환원을 거부하는 속성을 비동일성으로 규정하고, 예술은 이러한 환원을 거부하는 비동일성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대중이 원하는 아름다운

상품이 되기를 거부하고, 그 자체로 추하고 불쾌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 예술은 예술가가 직시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들에게 체험하게 해야 한다. 예술은 동일화되지 않으려는, 일정한 형식이 없는 비정형화된 모습으로 나타남으로써 현대 사회의 부조리를 체험하게 하는 매개여야 한다는 것이다.

[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

- 여기 아도르노의 예술 철학에 대한 설명이 있어. 그는 예술이 다양성을 가져야 한다면, 대중이 원하는 예쁜 것이 아니라 추하고 불쾌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해. 게다가 예술은 형식이 없이 동일하지 않아야 하고, 그것을 통해 현대 사회의 이상한 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네.

[포인트]

- 개념 구분 1: 동일성과 비동일성
- 개념 구분 2: 아름다움과 불쾌함
- 본질: 세계의 본질

아도르노는 쇤베르크의 음악과 같은 전위 예술이 그 자체로 동일화에 저항하면서도,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 표현하는 것에는 비동일성을 동일화하려는 폭력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불협화음으로 가득 찬 쇤베르크의 음악이 감상자들에게 불쾌함을 느끼게 했던 것처럼 예술은 그것에 드러난 비동일성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동일화의 폭력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다.

[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

- 아도르노의 음악철학에 대한 해설이야. 아도르노는 전위 예술이 동일화에 저항하면서도, 직접적인 저항이나 계몽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높게 평가하고 있어. 예술이 비동일성을 드러내어 동일화의 폭력에 저항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포인트]

- 개념 구분: 직접과 간접

아도르노에게 있어 예술은 사회적 산물이며, 그래서 미학은 작품에 침전된 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읽기 위해 존재한다. 그는 비동일성 그 자체를 속성으로 하는 전위 예술을 예술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으로 제시했다.

[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

- 아도르노의 예술 관련 이론을 설명하는 거야. 예술은 사실 사회적 산물이고, 미학은 작품에 담긴 사회적 고통을 읽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그는 말했어.

[포인트]

“사회적 산물로서의 예술”과
“침전된 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태”

(나)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통해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예술은 사회적인 것인 동시에 사회에서 떨어져 사회의 본질을 직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의 미학은 기존의 예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공한다. 가령 사과를 표현한 세잔의 작품을 아도르노의 미학으로 읽어 낸다면, 이 그림은 사회의 본질과 ㉞유리된 ‘아름다운 가상’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것이다.

[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

- 아도르노의 미학에 대한 설명이야. 그는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하면서도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통해 사회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해. 그래서 이게 기존 예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제공하는거야.

[포인트]

수단: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활용함 (예술은 사회적인 것인 동시에 사회에서 떨어져 사회의 본질을 직시하는 것)

목적: 예술의 자율성 추구

출제암시: ㉞유리된

하지만 세잔의 작품은 예술가의 주관적 인상을 붉은색과 회색 등의 색채와 기하학적 형태로 표현한 미메시스일 수 있다. 미메시스란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을 재현하는 것, 즉 감각될 수 없는 것을 감각 가능한 것으로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세잔의 작품은 눈에 보이는 특정의 사과가 아닌 예술가의 시선에 포착된 세계의 참모습, 곧 자연의 생명력과 그에 얽힌 농부의 삶 그리고 이를 ㉞응시하는 예술가의 사유를 재현한 것이 된다.

[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

- 세잔 작품에 대한 설명이야. 그 작품은 예술가의 개인적인 느낌을 색과 도형으로 표현한 거야. 이게 바로 미메시스의 한 예시인 거지. 이 작품은 예술가의 시선으로 본 세상을 살아있는 모습으로, 농부들의 삶과 예술가의 생각도 함께 담아냈대.

[포인트]

용어정리: 미메시스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을 재현하는 것, 즉 감각될 수 없는 것을 감각 가능한 것으로 구현하는 것)

출제암시: ㉞응시하는

아도르노는 예술이 예술가에게 포착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미적 체험을 현대 사회의 부조리에 국한시킴으로써, 진정한 예술을 감각적 대상인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한다. 결국 ㉞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다.

[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

- 아도르노의 미학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아도르노는 예술이 예술가에게 포착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로 하여금 체험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미적 경험을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경험으로 한정해. 그래서, 주관적인 재현이라는 미메시스 개념이 부정되고 있어.

[포인트]

전체: 모든 미적 체험

부분: 부조리에 국한된 미적 체험

전체 - 부분에 있는: 미메시스(주관의 재현)

출제암시: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다.

한편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의 영역을 극도로 축소시키고 있다. 즉 그 자신은 동일화의 폭력을 비판하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전위 예술만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주장하며 ㉡전위 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이는 현실 속 다양한 예술의 가치가 발견될 기회를 ㉢박탈한다. 실수로 찍혀 작가의 어떠한 주관도 결여된 사진에서조차 새로운 예술 정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베냐민의 지적처럼, 전위 예술이 아닌 예술에서도 미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대중 음악이 사회적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례도 있듯이, 자본의 논리에 편승한 대중 예술이라 하더라도 사회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

- 아도르노의 미학에 대한 설명이지. 아도르노는 전위 예술이 현실의 예술 가치를 놓치게 만든다고 주장했어. 그리고 베냐민은 전위 예술이 아닌 예술에서도 미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지. 여기에는 대중 예술이라고 해도 사회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예가 있는데, 그런 것도 언급하고 있어.

[포인트]

개념 구분: 동일화와 비동일화

새로운 인물 등장: 베냐민

출제암시 1: ㉡전위 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다.

출제암시 2: ㉢박탈한다

출제암시 3: ㉣발견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10~13

사유 재산 제도하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 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는 그 당사자인 무상 처분자와 무상 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반복될 수 있다. 무상 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그의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무상 처분자는 피상속인이 되고 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

- 무상 처분자가 죽으면 어떻게 상속 문제가 생기는데 대해 설명해줄게. 그러니까 무상 처분자가 죽으면, 상속인들이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무상 처분자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포인트]

개념 구분 1: 처분자와 취득자

개념 구분 2: 유류분과 유류분권 (유류분에 대한 권리)

개념 구분 3: 자의와 타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과가 반복됨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다.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 한 명뿐이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1/2만 보장된다.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은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에 이미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하여 산정한다.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

-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인 유류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가 한 명뿐이면, 상속받을 수 있는 이익의 1/2만 보장되는 거예요.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포인트]

용어정리: 유류분 (피상속인의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

예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 한 명뿐이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1/2만 보장됨

계산식: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 + “이미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

계산식의 원인: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이 있는 상속인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다.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인 유류분 부족액만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류분 부족액의 가치는 금액으로 계산되지만 항상 돈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무상 처분된 재산이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주식처럼 돈 이외의 재산이라면,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무상 취득자는 돈으로 반환해야 한다. 또한 재산 자체의 반환이 가능해도 유류분권자와 무상 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돈으로 반환될 수도 있다.

[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

- 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가졌던 돈, 부동산, 주식 등으로부터 이익을 얻었을 경우, 유류비 부족액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야. 유류비 부족액은 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무상 처분된 재산이 돈 이외의 재산인 경우, 해당 재산 자체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재산 자체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무상 취득자는 돈으로 돌려 줘야 해.

[포인트]

조건: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이 있는 상속인

계산식: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 = “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 - “이미 상속받은 이익”

개념 구분: 물건과 돈 / 현물과 현금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이라면 유류분 반환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무상 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의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무상 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눠지는데, 이때 각자의 몫을 지분이라고 한다.

[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

-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일 경우 유류분 반환 쪽 설명을 좀 보면 될 거 같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이 반환해야 할 유류분이 물건 가치보다 적을 경우, 유류분 권한 있는 사람은 반환금을 물건 가치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받을 수 있어. 그렇게 하면 하나의 물건이 여러 사람에게 나눠지는데, 이것 지분이라고 하지.

[포인트]

조건 1 :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

조건 2: 무상 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

용어 정리: 지분 (무상 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의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무상 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음)

무상 처분된 물건의 시가가 변동하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언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그 물건의 시가 상승이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서 비롯되었으면 이때는 무상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반환 대상인 지분을 계산할 때는,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

- 물건을 무상 처분할 때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설명이야. 유류분의 취지에 따라,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무상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때도 있어. 반환 대상인 지분을 계산할 때는 어떤 경우에도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해.

[포인트]

가정: 무상 처분된 물건의 시가가 변동하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질문: 언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구분 기준: 노력의 여부

출제암시: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14~17

인터넷 검색 엔진은 검색어를 포함하는 웹 페이지를 찾아 화면에 보여 준다. 웹 페이지가 화면에 나타나는 순서를 정하기 위해 검색 엔진은 수백 개가 넘는 항목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을 사용한다. 대표적인 항목으로 중요도와 적합도가 있다. 검색 엔진은 빠른 시간 내에 검색 결과를 보여 주기 위해 웹 페이지들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인덱스를 미리 작성해 놓는다. 인덱스란 단어를 알파벳순으로 정리한 목록으로, 여기에는 각 단어가 등장하는 웹 페이지와 단어의 빈도수 등이 저장된다. 이때 각 웹 페이지의 중요도가 함께 기록된다.

[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

- 검색 엔진은 검색어를 포함하는 웹 페이지를 찾아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방식과 인덱스를 사용해.
- 빠른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검색 엔진은 웹 페이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덱스를 미리 작성하며, 각 웹 페이지의 중요도도 함께 기록해.

[포인트]

개념 구분: 중요도와 적합도
 용어정리: 인덱스(검색 엔진이 빠른 시간 내에 검색 결과를 보여 주기 위해 웹 페이지들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미리 작성해 놓는 것)

㉠중요도는 웹 페이지의 중요성을 값으로 나타낸 것으로 링크 분석 기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기본적인 링크 분석 기법에서 웹 페이지 A의 값은 A를 링크한 각 웹 페이지들로부터 받는 값의 합이다. 이렇게 받은 A의 값은 A가 링크한 다른 웹 페이지들에 균등하게 나뉜다. 즉 A의 값이 4이고 A가 두 개의 링크를 통해 다른 웹 페이지로 연결된다면, A의 값은 유지되면서 두 웹 페이지에는 각각 2가 보내진다.

[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

- 이번에는 링크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웹 페이지의 중요성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볼게. 링크 분석 기법에서 웹 페이지 A의 값은 A를 링크한 다른 웹 페이지로부터 받는 값의 합으로 계산돼.

[포인트]

계산식: “웹 페이지 A의 값”=

”A를 링크한 각 웹 페이지들로부터 받는 값의 합”

계산식에 대한 예시

하지만 두 웹 페이지가 실제로 받는 값은 2에 댄핑 인자를 곱한 값이다. 댄핑 인자는 사용자가 웹 페이지를 읽다가 링크를 통해 다른 웹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반영한 값으로 1 미만의 값을 가진다. 댄핑 인자는 모든 링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령 그 비율이 20%이면 댄핑 인자는 0.8이고 두 웹 페이지는 A로부터 각각 1.6을 받는다. 웹 페이지로 연결된 링크를 통해 받는 값을 모두 반영했을 때의 값이 각 웹 페이지의 중요도이다. 웹 페이지들을 연결하는 링크들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검색 엔진은 주기적으로 웹 페이지의 중요도를 갱신한다.

[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

- 검색 엔진이 어떻게 웹 페이지의 중요도를 결정하는지 설명해드릴게요. 댄핑 인자를 사용해서 링크를 클릭하지 않고 다른 웹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반영하면서, 각 웹 페이지의 중요도를 계산해요.

[포인트]

계산식: “ 두 웹 페이지가 실제로 받는 값” =

“2(링크한 다른 웹 페이지들에 균등하게 나눠진 값)”

× “댄핑 인자”

용어 정리: 댄핑 인자(사용자들이 웹 페이지를 읽다가 링크를 통해 다른 웹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반영한 값으로 1 미만의 값을 가짐)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엔진은 인덱스에서 검색어에 적합한 웹 페이지를 찾는다. ㉠적합도는 단어의 빈도, 단어가 포함된 웹 페이지의 수, 웹 페이지의 글자 수를 반영한 식을 통해 값이 정해진다. 해당 검색어가 많이 나올수록, 그 검색어를 포함하는 다른 웹 페이지의 수가 적을수록, 현재 웹 페이지의 글자 수가 전체 웹 페이지의 평균 글자 수에 비해 적을수록 적합도가 높아진다. 검색 엔진은 중요도와 적합도, 기타 항목들을

적절한 비율로 합산하여 화면에 나열되는 웹 페이지의 순서를 결정한다.

[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

- 검색 엔진이 어떻게 검색어에 적합한 웹 페이지를 찾는지 설명합니다. 적합도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얼마나 많은 웹 페이지에 있는지, 그리고 글자 수 등을 고려해서 결정돼. 그리고 중요도랑 같이 웹 페이지 순서도 결정돼.

[포인트]

중요도가 아닌 것: 적합도 혹은 중요도가 아닌 요소

용어 정리: 적합도가 정해지는 방식 (단어의 빈도, 단어가 포함된 웹 페이지의 수, 웹 페이지의 글자 수를 반영한 식을 통해 값이 정해진다)

계산식: “적합도가 높아짐” =

“단어의 빈도, 단어가 포함된 웹 페이지의 수, 웹 페이지의 글자 수를 반영한 식을 통해 값이 정해진다. 해당 검색어가 많이 나올수록, 그 검색어를 포함하는 다른 웹 페이지의 수가 적을수록, 현재 웹 페이지의 글자 수가 전체 웹 페이지의 평균 글자 수에 비해 적을수록”